

# ‘내 이름이 브랜드’ 세계청년축제 펼쳐진다

### 내달 개최 앞두고 7개팀 선정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기획 ‘청년축제학교’서 현장 멘토링

청년들이 자신의 이름을 건 축제를 직접 만들어, 세계청년축제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축제부터 기획부터 준비까지 청년들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며, 축제 명칭에도 기획 청년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다.

광주시는 최근 청년들이 자신의 상상을 축제장에서 실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축제학교’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청년축제학교는 청년들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청년문화를 확산시키

는 ‘2016 세계청년축제’의 하나로, 청년축제학교 참가자가 자신의 기획을 직접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이 주인공이 되어 축제를 주도하고, 강의실 교육을 벗어나 현장에서 실행해 보는 경험을 통해 청년의 역량을 성장시킨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지난 4월25일부터 5월1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해 18개 팀이 접수,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7개팀이 선정됐다.

선정된 7개 팀은 ▲시민을 위한 작은 결혼식(이대호·29) ▲색깔로 청년의 정체성을 찾는 청년 스펙트럼 놀이(아이두팀) ▲유리병을 재활용한 예술 체험(김미숙·27) ▲미래 트렌드로 주목받는 VR 실험(박정우·32)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맞서기(정준·30) ▲거리에서 춤 배우기(디오티 컬처 팀) ▲청년이 모델이 된 세계

청년 패션쇼(F.O.B 팀) 등으로 참신한 기획이 돋보였다.

특히, 세계 청년 패션쇼를 기획한 F.O.B팀은 울산에 거주하면서 광주에서 열리는 청년축제에 애정을 갖고 참가 신청을 해 관심을 끌었다.

공대생들로 구성된 아이두팀의 오대현씨(25)는 “실행 과정에서 더욱 열심히 준비해 전국 어디에도 없는 청년축제학교를 멋지게 성공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조전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문위원은 “참가한 청년들의 개성 있는 역량이 돋보여서 함께 협업을 해가면 더 큰 성취를 이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석 광주시 청년인재육성과정은 “창조적인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새로운 기획들을 마음껏 펼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축제학교를 마련했다”며 “청년들의

참신한 도전이 확산돼 문화도시 광주를 더욱 빛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축제학교 참가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오는 7월 28일부터 열리는 2016 세계청년축제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행사를 진행하며, 준비 과정에서 현장 멘토링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문화행사로 추진된 세계청년축제는 광주를 대표하는 청년문화 콘텐츠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로 일대에서 2회째 축제를 개최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재외동포재단과 연계해 중국, 중앙아시아, 북미, 일본 등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 청년 350여 명이 광주를 방문해 청년축제를 즐길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자동차 100만대 기지 역량 결집”

### 광주 연구기관들 결의문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을 비롯한 광주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금형산업진흥회 등 광주 지역 5개 자동차 유관기관은 9일 광주그린카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광주의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 자동차산업의 미래성장 실현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 지역 전략을 수립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면서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성공으로 광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제조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맞이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지난 2월 예비타당성 조사수정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복의 거리’에 조성된 꽃 테마정원.

## 충장로 한복의 거리 산뜻한 꽃단장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복의 거리’에 사계절 꽃향기를 전하는 테마정원이 조성됐다.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는 한복의 거리(총장로 4.5가)에 한국적이면서도 추억을 느낄 수 있도록 전통적인 정원을 조성했다고 9일 밝혔다. 충장로 4~5가는 한복과 귀금속 상가가 주류를 이루는 거리라는 점을 주목하고, 종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특성을 고려했다.

상가와 도로 사이에 대형화분 28개를 설치하고, 피라칸사스, 난향, 주목, 꽃대강, 홍매자 등 사계절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나무 300여 그루와 물싸리, 초롱꽃, 물레나물, 송엽국, 아주가 등 야생화를 심었다. 개화 시기가 다른 야생화를

심어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했고 화분 바깥쪽으로는 앉아서 쉴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했다.

어머니들이 사용하던 항아리, 물레, 물 꽃, 주걱 등 소품을 활용해 물레정원, 옛 추억 정원, 달콤정원과 도심에서 나무, 물, 새, 나비 등이 춤추는 비오름 정원, ‘꽃이 있는 충장로를 보니 또 보고싶다’라는 뜻을 담은 ‘보니또정원’ 등 특색 있는 정원을 연출했다.

충장로 상가 상인회(반영회)에서도 화분내놓기운동을 펼쳐 철쭉, 남천 등 꽃 화분 70여 개를 배치하고, 상인들도 화분을 내놓으며 생동감 넘치는 거리 조성에 참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도시재생 주민제안’

### 동구 24일까지 접수

광주시 동구는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역량강화와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6 도시재생 주민제안’을 공모한다.

주민제안 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일반공모와 기획공모로 나뉘어 각 10팀씩 20팀을 선정한다.

일반공모는 동구 주민 3명 이상인 팀이 도시재생선도지역 전반에 걸친 사업을, 기획공모는 주민과 전문가가 한 팀을 이뤄 충장로 4~5가 일원을 대상으로 펼치는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모집 분야는 일반·기획공모 모두 공공디자인, 주민커뮤니티 강화, 콘텐츠 개발 등 도시재생과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이다.

동구는 실현가능성, 장소특정성, 지속가능성 등 전문가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팀을 선정하고, 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농가도 ‘달빛동맹’ ‘달빛동맹’의 광주시와 대구시가 농식품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양 시는 9일부터 4일간 진행중인 2016대구국제식품전(DAFOOD 2016)에 ‘달빛동맹 농식품 특별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 1기 명품기업’ 남도금형...중기청서 10년 지원

### ‘월드 클래스 300’ 사업 선정

남도금형(주)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인 ‘World Class 300’사업에 선정됐다.

9일 광주시는 그동안 시가 민선6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한 결과로, 지난 5월23일 글로벌 강소기업 6개사 선정에 이

은 쾌거라고 밝혔다.

“World Class 300” 육성사업은 정부가 2017년까지 세계적 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요건은 매출액 400억~1조원, 직·간접 수출 비중 20% 이상, 3년 평균 연구개발(R&D) 투자율 2%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남도금형(주)는 1993년 설립 이후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세계 수준의 기술력과 사업규모를 갖춰 왔다. 특히, ‘그린몰드(가열금형기술)’라는 시스템 금형을 자체 개발해 국내 및 세계 특허를 획득하는 등 국내 1위, 세계 1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R&D를 최대 5년간 75억원(연간 15억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하고, 특히 개발기술에 대한 특허 전라수립

을 의무화해 과제당 8000만원을 필수로 지원한다.

또한,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은 최대 5년간 국비 5억원(연간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의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인력, 금융, 글로벌 진출 등 앞으로 10년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종환 광주시 일자리경제국장은 “‘100대 명품강소기업’을 육성해 ‘World Class 300’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제1기 명품강소기업인 남도금형(주)이 선정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협동조합·동아리 대상 교육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센터장 윤난실)는 최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광산구 협동조합 동아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구 협동조합 동아리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을 준비 중이거나 관심 있는 주민모임, 청년 창업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사업개발 워크숍, 선진지 견학등의 기회를 제공해 철저한 훈련을 통해 내실 있는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사업이다.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동아리 또는 광산구 주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20일까지 센터 홈페이지(www.maeulings.or.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하면 된다. 관련문의는 센터 사회경제지원팀(062-960-7918)으로 연락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대지

### 투자 가치 좋습니다

- 전남 여수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평가 - 23억원
- 용 12억 8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 모텔

### 호텔급 숙박 업소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평가 - 15억
- 매매 - 10억 (조정가능)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6억 3000만원만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연 4억 이상 순수익 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 전원주택지

-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산 12-7 대지 328평, 33세대중 1기반시설 조성중 (화순군청) 2016년 8월말 완공 예정
- ▶ 매매 - 1억 6천만원
-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전원주택지

- ▶ 장성군 동회면 남산리 1073-7 문화마을, 128평, 코너 계획관리지역, 위치좋은 36세대중 20세대 거주
- ▶ 매매 - 8300만원 (조정가능)
-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경매투자

-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